

관계의 확장

2024

자유로운 만남

활기찬 미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www.facebook.com/seoulnoin

 <https://www.instagram.com/seoulnoin>

 <https://youtube.com/@TV-vu4ri>

 http://pf.kakao.com/_ZrQxhT



관계의 확장

02 마음을 이어가는 글 관계의 확장

우리가 만드는 관계

직면하는

- 06 건강한 밥상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 08 안녕하세요, 여기는 복지정보센터입니다

사유하는

- 10 영화(映畵)하는 노인, 영화(榮華)로운 노년을 보내다
- 12 다양한 시각의 하모니

누리는

- 14 새로운 걸 경험하니 좋고 함께라서 더 즐거운, 2024 노인의날 맞이 어르신 나들이
- 16 나에게 도슨트란, 삶의 활력소다!

전하는

- 18 ‘나, 너, 우리’로 나아가는 이야기, 드림서클 음악단
- 20 소리로 이어지는 ‘나와 우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지웅
편집인 함상원, 유경희
진행 김이서
발행처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T.02-6220-8500 www.seoulnoin.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위드 T.02-6951-0402
 www.designwith.co.kr

쌓이는 관계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 24 후원자 이야기 : 센터는 나에게 즐거움이자 행복의 공간

삶에 대하여

- 26 단향(檀香)

나눔으로 꿈꾸는

- 28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우리)의 미래

- 30 따뜻한 손길, 깊어지는 인연 : 신한라이프의 나눔 이야기

관계를 넘나드는

세대통합 이야기

- 34 왓츠 인 마이백
- 36 나이듦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

- 38 현장의 목소리

피어나는 시간

- 40 삶에 머무르는 따뜻한 흔적

관계의 확장



관계의 확장은 작은 연결이 큰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와 나누었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대화가 또 다른 만남을 불러오고,
그 만남들이 이어져 서로를 이어주는 관계의 고리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얼굴들이 차츰 익숙해지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여가는 믿음과 정은 센터를 더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와 관심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화엄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고 돕는
관계임을 가르칩니다. 하나의 꽃이 피어남에도 물과 햇빛 등 적당한
인연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는 서로의 존재 속에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에 감사드리며,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여러분의 따뜻한 인연의 공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합장

1.

CHAPTER

우리가 만드는 관계

직면하는

건강한 밥상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복지정보센터입니다

사유하는

영화(映畵)하는 노인,

영화(榮華)로운 노년을 보내다

다양한 시각의 하모니

누리는

새로운 걸 경험하니 좋고 함께라서 더 즐거운,
2024 노인의날 맞이 어르신 나들이

나에게 도슨트란, 삶의 활력소다!

전하는

‘나, 너, 우리’로 나아가는 이야기,

드림서클 음악단

소리로 이어지는 ‘나와 우리’

건강한 밥상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만발식당
김은애 영양사

어르신들께 잘 차려진, 건강한 밥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니 속에 균형 잡힌 영양소를 포함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식사를 의미합니다.

식사에는 다양한 식품군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탄수화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밥상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어, 일상생활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이끌어 줍니다.

건강한 밥상은 맛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도 가져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소중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어르신 여러분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모두가 건강한 밥상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만발 식당,
이곳이 행복입니다.”

김0기 어르신

“4월 8일부터 식사를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끼니를
거르고 제때에 먹지 않아, 건강이 안
좋았지만,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식당을
이용하면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앞으로는 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0순 어르신

“만발 식당의 점심은, 우리의 하루를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대부분 끼니를 거르고
점심 식사로 하루를 버티는데, 건강한 밥상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서0섭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기는 복지정보센터입니다

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사 홍희선

‘여, 뭐하는 데요?’

벚꽃 날리던 4월, 탑골공원 북문 앞에 뜬금없이 생긴 네모난 건물. 탑골공원 북문에 위치하여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정보센터는 탑골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규모는 작지만 그 역할과 책임이 큰 공간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에 대한 어르신들의 끝없는 호기심에 복지정보센터의 자동문은 달힐 새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곳은 아닌지, 홍보하면서 노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곳은 아닌지 등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웠던 것도 어느덧 8개월을 지나니, 이제는 ‘여-홍 선생님-안녕하십니까?’, ‘여기 내년에도 있는거지?’, ‘나 인사하러 왔어~’ 등 따뜻한 인사가 넘치는 사랑방으로 바뀌었습니다.

8개월 동안 500여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는 물론, 평소 궁금해 하셨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해서 안내드렸더니 지금은 여러 어르신과 어르신들의 사연이 가슴에 참 많이 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무료로 급식이용이 가능하냐고 물어오신 78세의 A어르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어르신의 가족들에 대해 여쭙보는 상황이면 입을 꼭 다무시며 ‘그냥 가족 얘기는 안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안부차 여쭙던 어르신의 근황에도 딱히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때,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마음 속에 내내 묵혀두셨던 이야기를 힘들게 꺼내셨습니다. ‘내가 복지정보센터에 처음 왔을 때, 나는 가족 문제로 세 번이나 세상을 등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되더라구.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복지사님이 보여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여기 안왔으면 나는 이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밥도 잘 먹고, 복지관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즐기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벚꽃이 화사했던 봄날과 대조되는 그늘진 그 분의 얼굴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탑골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그 곳에서도 여전히 혼자인 듯 했던 어르신은 이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고, 다른 분들과 관계맺음으로써 그간의 아픈 상처를 많이 회복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갈 곳이 생겼다는게 기뻐요.

복지정보센터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혼자 여기 저기 떠돌며 다니시는게 하루의 일과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알고 싶어도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 방법을 몰라.. 필요한 복지정보도 물론 찾을 수 없지..”, “너무 복잡해서 도통 모르겠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말야..”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어르신들께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세상이 된 것이겠지요. 복지정보센터는 그 사이에서 어르신들이 복지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곳입니다. 무료급식, 스마트폰 교육, 법률상담, 심리상담, 취업 등 필요한 요



청사항을 듣고, 정보를 찾아드리고 연계해드립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무척이나 감사해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이제 갈 곳이 생겨서 기뻐요,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혼자라서 부끄럽다고 하셨던 어르신들은 어느새 삼삼오오 복지관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와 의 관계맺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늘진 사연들을 어렵게 털어놓으셨던 어르신들을 센터에서 간혹 뵈면, 손가락이라도 걸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이제 친구도 많이 만드시고, 즐겁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약속이요~”

* 복지정보센터는 24년 12월 말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영화(映畫)하는 노인, 영화(榮華)로운 노년을 보내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사회복지사 강민지

은퇴 이후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 본관에서 다양한 영화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영화교실 수료자 중, 올해 진행한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 본선진출한 2분의 어르신과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명상 2024>의 평성인 감독님, <모과향>의 최은화 감독님입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평성인 안녕하세요. 평성인입니다. 저는 23년 차 비건으로서, 환경과 건강, 생명 존중에 관심이 많습니다. 드론, 사진관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영화 쪽에도 관심이 생겼고, 센터에 노인영화 감독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화 안녕하세요. 최은화입니다. 저는 창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영화를 보는 것보다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Q. 두 분 모두 올해 진행된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작품이 본선진출작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장상을 받는 큰 성과도 있었어요.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평성인 다들 저를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영화로 상도 받으니까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올 한 해는 정말 에너지가 넘쳤었죠.

최은화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선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재능에 놀라워했습니다.

Q. 멋진 작품으로 성과를 내시기도 했지만, 제작하실 때 분명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평성인 화질이나 해상도 업스케일링에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만들다가 날아간 적도 있었고, 영어 자막을 내야 하는데 자막 싱크 맞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큰 경험 이었고, 자원봉사자 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지 않은 상도 받아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답니다.

최은화 촬영은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유리창에 반사되는 빛이나 미용실 거울에 비치는 원치 않는 영상을 편집할 때까지 몰랐던 것이 후회됩니다. 촬영은 예술이자 과학이므로, 실습을 통해 실수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두 분 다 촬영과 편집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영화제에 도전하게 한 원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평성인 젊었을 때부터 도전 정신이 강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 그걸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영화제 출품뿐 아니라, 제 삶의 철학이 도전이에요.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최은화 제 영화가 평가받을 수 있는 영화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세 번 입선한 것에도 불구하고 의욕은 여전히 강합니다.

Q. 사실 두 분처럼 영화를 통해, 혹은 또 다른 활동을 통해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명상 2024
Meditation 2024

평성인 어떻게 보면 지식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노인 한 명이 큰 도서관이라고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노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해요. 저는 다양한 연령대들을 만나는 데, 나이가 많다고 그들이 어려워하지 않게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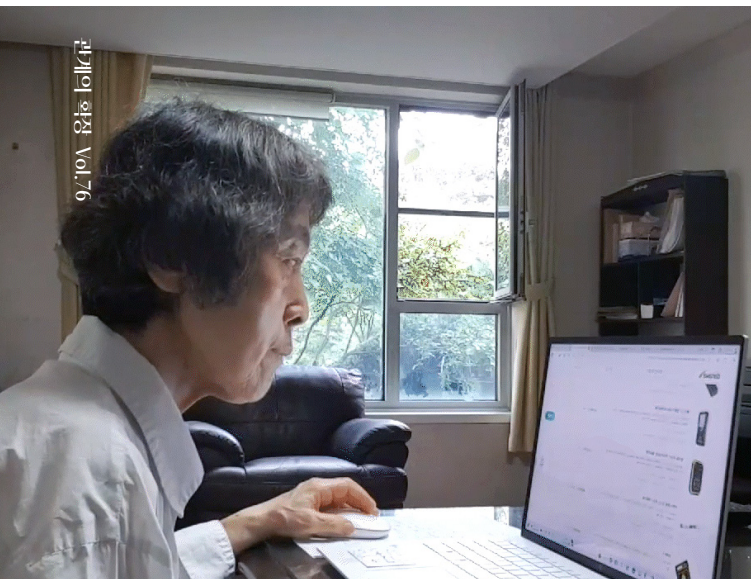
최은화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노인에게 새로운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의 풍부한 인생 경험이 국가적으로 훌륭한 시니어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정관념에 갇혀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세요.

평성인 심신일여(心身一如),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면 올바른 몸이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살면 이 유한한 생에서 소풍을 잘하고 간다고 할 수 있죠. 나이에 구속받지 않고 내 삶을 충실히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화 저는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며 재능을 발전시키는 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노인은 체력이 떨어질 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창작을 위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보통의 체력으로도 창작 분야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평성인, 최은화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화(映畫)를 제작하며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두 어르신들이 영화(榮華)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의 하모니

탐골북클럽
사회복지사 정두혁

대부분의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귀가하시는 오후5시.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탐골작은도서관이
환하게 불을 키고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대.연(수도권대학생독서연합회)과 탐골
북클럽 어르신들의 월1회 독서토론 모임을 하는 날
입니다. ‘탐골북클럽’은 세대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
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대학생들과 독서 토론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토론회를 진행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참
여 학생들과 ‘탐골 북클럽’ 어르신들 간에 친밀도
도 높아졌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이고 책을
좋아 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독서 모임인



‘탐골북클럽’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되면
자연스럽게 분관 상상교실에 모여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보면 좋은 책도 서로 추천해
주고, 좋은 문구는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평균적으
로 10명 정도의 어르신이 활동 하고 계시고, 수시로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1회 ‘수.대.연’ 대학생과 같이 도서를 선정하여 각
자 독서 후 같이 독서토론을 함으로써 각기 다른 세
대가 같은 도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서로 나눌 수 있
어서 세대간의 생각의 교환이 자연스레 이루어집니
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금
방 흘러가고 다음에 같이 볼 책을 정합니다. 어르신
들이 생각하는 대학생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책, 대
학생들이 요즘 즐겨보는 책 등 서로 도서를 추천하
고 다음 모임을 기약합니다.

올해 1년차인 탐골 북클럽은 어르신들을 위한 신간
도서 소개, 학생들이 보면 좋을 책 소개, 지역사회
에서 활동하는 작가와의 만남까지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며 오늘도 책과 함께 세상과 소통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경험하니 좋고 함께라서 더 즐거운, 2024 노인의날 맞이 어르신 나들이

노인의 날 나들이
사회복지사 윤빛나

10월 2일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섬김의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노인의 날’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올해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을 부여로 떠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는 일이 여행일 텐데요. 여행은 혼자 떠나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행복이 배로 다가오게 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회원이신 진순자 어르신 역시 여행이 삶의 활력소이자 기쁨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부여 나들을 포함해서 올해 진행한 나들이에 모두 참여할 만큼 여행에 진심인 어르신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그 기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Q. 어르신은 올해 진행된 세 번의 나들이에 모두 참여하셨어요. 나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소에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나들이는 삶의 활력소이자 매년 새로운 걸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센터에서 나들이 간다하면 빠지지 않고 꼭 갑니다.

Q. 이번에 부여 다녀왔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나요?

올해 다녀온 세 번의 나들이 중에 부여가 제일 좋았어요. 평소에 배를 탈 기회가 많이 없는데 황포돛배를 타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은 것도 좋았고, 특히 백제문화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 역사 시간에 자주 보았던 문화재가 하나 있더라구요, 내가 오늘 여기서 그 문화재의 이름을 꼭 알아 가지고 외워둬야지 하고, 그걸 보려고 박물관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서는 이름도 써서 왔는데.. 아 맞아, ‘금동대향로’였어요. 너무 멋지고 책에서 보던 걸 또 직접 보니까 더 좋았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Q. 마지막으로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좋으세요? 같이 가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같이 가는 게 좋지요.

Q. 그럼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내 짝궁은 이봉년이에요. 시간만 맞으면 우린 늘 같이 다니고 같이 사진도 찍어요. 서로가 있어서 더 기쁘고 함께 다니니 나들이가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속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놀러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진순자 어르신 말씀처럼 새로운 걸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어서 더 즐거운 것이 바로 여행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나들을 통해 즐거운 시간들을 쌓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도슨트란, 삶의 활력소다!

탐골미술관 도슨트
사회복지사 이서영

세대와 예술을 이어주는
실버도슨트 어르신들

김순희, 김영환, 박선희, 박은영,
유정화, 육근환, 이재영, 임선심,
조현숙, 최명락, 황성희, 하민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에 자리 잡은 탐골미술관은 어 느덧 11년째 어르신들과 지역사회가 문화예술을 통 해 활발히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객과 작품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실버도슨 트 어르신들은 남다른 열정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작 품해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미리 만나 작품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설원고를 준비하여 관람 객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시간은 그들에게 소소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더해주는 특별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남의 연속

실버도슨트 어르신들은 각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 문 화예술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소중한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 끼고 있습니다. 한 도슨트 어르신께서는 “미술관에 찾아오시는 90대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건 강한 노후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라며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 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전합니다. 이렇듯 탐골미술관은 90대의 어르신이 60대의 어르 신에게 용기를, 60대의 실버도슨트 어르신이 또 다른 세대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탐골미술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안에 자리하고 있 지만,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누구나에 게 열려있는 문화예술공간입니다. 지난 9월에는 코 로나 이후 오랜만에 아이들을 미술관으로 초대하여 작품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일일 강사로 활동하신 실버도슨트 어르신 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을 보며 나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귀한 요즘,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고 소중한 기 억이 될 것 같아요.”라며 아이들과의 만남에 특별한 감동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

한 아이들 또한 “할머니(실버도슨트)가 제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또 놀러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며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 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탐골미술관의 실 버도슨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만남의 연결고리 가 되어줍니다. 실버도슨트 어르신들은 그들의 삶 에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와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며, 각 세대가 서로에게 배움과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연속

실버도슨트 어르신들은 “매 전시를 통해 세상의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보 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전하며, 도슨트 활동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쭙. 작품들과 대화를 하며 깊은 여운을 느낍니다!”라고 덧붙이며, 예술이 가진 힘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번 <지구를 위한 내·일> 전시에서는 대학 생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한뼘미술관의 콘텐츠 로 숏츠를 촬영하며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익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버도슨트 어르신들은 “젊은 이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숏츠를 찍게 되어 신기했어요”라며, 온라인 소통에 대한 설렘을 드 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숏츠 촬영을 통해 디지 털 미디어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젊은 세대와 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실버도슨 트 활동은 단순히 전시 해설을 넘어서, 서로 다른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가치와 경험 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토대로 다음 세대에게 지혜 를 나누기도 합니다. 실버도슨트 어르신께서는 “젊 은 세대와의 대화 속에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 고, 제 경험을 나누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 며 이러한 과정은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자 성취감 을 주며, 문화예술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실버도슨트 어르신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열정과 함께 인생에서 쌓아온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시선이 더해진 실버도슨트의 작품 해설은 동년배에게는 공감, 다양한 세대에게는 예술을 매개로 한 교감을 선사하여 누구나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함께하는 탐골미술관에서 실버도슨트와의 만남을 통해 예술을 더 가까이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슨트 활동이 궁금해요!

활동일자 전시기간 중 월-토 10시~14시 / 14시~18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담당자 면담 후 확정

실버도슨트의 전시 해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음성으로, 유튜브 채널 ‘탐골TV’와 인스타그램 ‘@topgoal.art’에서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 너, 우리’로 나아가는 이야기, 드럼서클 음악단

드럼서클 음악단
사회복지사 우지선

“드럼서클이 뭐야? 드럼 알려주는 건가?”

드럼서클 음악단 홍보지를 보고 온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물어온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기도 한 음악기법인 드럼서클은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원의 형태로 모여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드럼서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뛰어난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음악을 매개로 나를 발견하고 공동체 경험을 통해 우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나를 알아보고 새롭고 긍정적인 노인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어르신 20명이 모여 두 달여 간의 ‘드럼서클 음악단’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나]를 알아가며 [네]와 소통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르신들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양보하고 배려하며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로젝트 초반에는 정해진 음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작은 악기 소리만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단원 어르신이 “다들 즐기러 온 거 아니야? 더 크게 쳐야 흥이 나지~”라고 외치셨고, 그제야 어르신들은 멋쩍게 웃으며 여러 번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해보며 내 안에 있던 감정, 생각들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리듬을 느끼며 그 안에 숨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모니를 이루며 음악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로 나아가다.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는 경험 속에서 단원 어르신들은 “이런 귀한 경험을 우리만 하다니 너무 아쉬워”라는 말을 종종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류와 하모니를 더 많은 어르신과 공유하고자 공연을 기획하고 선보였습니다. 가야금, 해금, DJ, 무용 등 여러 공연팀과 함께 강당에서 시작하여 로비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럼서클 음악단은 음악으로 다양한 형태의 ‘우리’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조별로 리듬도 만들고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아프리카 전통 리듬 ‘모리바얏사’를 연주하며 서로를 향한 희망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악기 소리가 모여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지듯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라는 하나의 팀으로 나아갔습니다.

탐골공원에서 [함께]가 되다.

드디어 대망의 탐골공원 공연 날, 긴장과 설렘을 가득 안고 단원들은 악기를 하나씩 손에 쥔 채 탐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연주했던 리듬, 조별로 만들었던 리듬, 서로를 위한 희망을 전하는 리듬까지 ‘우리’를 보여주는 흥겨운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흥겨움에 탐골공원 일대를 지나던 어르신, 관광객, 주민들까지 단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에 단원 어르신들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기를 쥐여주기도 하고 무대 중앙에 나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용히 바둑장기를 두며 일과를 보내던 탐골공원 일대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에 함박웃음 지으며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사이지만 음악을 즐기는 몸짓, 표정을 통해 ‘함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맺어진 팀은 영원한 팀이야!” 드럼서클 음악단의 여정이 다 끝난 후 어르신들이 웃으며 건넨 말입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단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부터 확장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드럼서클 음악단처럼 단순한 소통을 넘어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드럼서클 음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지원하는 2024 지역문화플랫폼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리로 이어지는 ‘나와 우리’

문화예술지원사업 합창
사회복지사 이행복

매주 목요일 열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4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소리로 이어지는 나와 우리’는 합창의 기초를 배우고, 음악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선곡한 나의 인생곡을 다른 참여자와 공유하고 배워보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음악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자, 서로를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죠. ‘소리로 이어지는 나와 우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음악의 힘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풍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합창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본적인 음계와 발음을



외부로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참여자들 간 친목을 더욱 깊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O항 어르신은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느꼈고, 다같이 함께 와서 정말 행복했다”, “음악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이야기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현장학습을 통해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도 한층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겨울인 12월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발표회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멋진 공연을 선보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해 형성된 관계들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계기가 됨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익히며 서서히 음악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처음 시작할 땐 아는 사람이 없고 회기가 길어 걱정하는 반응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 얼굴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서로 친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는 관내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며 처음으로 무대에 서보기도 하였는데요. 공연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무대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참여자들 간의 팀워크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또한 날씨가 시원해진 10월에는



2.

CHAPTER

쌓이는 관계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후원자 이야기
: 센터는 나에게 즐거움이자 행복의 공간

24

삶에 대하여

단향(檀香)

26

나눔으로 꿈꾸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28

나(우리)의 미래

따뜻한 손길, 깊어지는 인연 :
신한라이프의 나눔 이야기

30

후원자 이야기 : 센터는 나에게 즐거움이자 행복의 공간

일상후원
사회복지사 유경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나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어르신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제가 본
센터에서 만난 하영순 어르신은 항상 밝고, 즐겁게 활
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배우자의 갑작스런 이
별로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서울시어르신상담센
터를 알게되었고, 그렇게 서울노인복지센터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일상을 회복해 가는
중 ‘센터가 나에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
었는데 나는 센터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
하다 1층 만발식당의 급식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
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날 이후 현재까지
급식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자원봉사 활동 외에도 센터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센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수 있음에 감사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하였
습니다.

센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르
신에게는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을 되찾게 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에, 이 소중한 공간에서 만나는 이들과 오래 오래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어르신의 바람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단향(檀香)

노인자원봉사
사회복지사 김광현

안녕하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자원봉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는 용의해를 맞아 “서울노인용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로서 처음에는 ‘어떻게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는 봉사자분들과 관계를 이어가며, 옆에서 헌신하는 봉사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 품었던 의구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센터 1층 미술관, 2층 프로그램실(영화관, 당구, 탁구 등), 3층 라디오 방송실과 더불어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등 봉사자가 필요한 곳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지금은 노인자원봉사자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맛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센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봉사자분들의 노력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진정한 삶의 일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센터 곳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한 서울노인용사단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영상서포터즈

영상서포터즈 정영은

어르신들의 가방 속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본 노인 분들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보기만 해도 무거운 가방을 매고 계셨다. 나이가 들면 무거운 가방을 드는 일이 더 힘들어질 텐데, 많은 물건을 챙겨 다니시는 이유는 뭘까?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어르신들의 ‘왓츠 인 마이 백(What’s in my bag?)’ 영상 촬영에 까지 이르렀다. 악보집, 하모니카, 비상 상비약부터 화장품, 사탕, 선글라스까지. 낯설지 않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물건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가방 속에서 등장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물건은 사탕이었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할머니가 예쁜 상자에 소중히 넣어 두신 사탕을 받아먹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탕을 즐겨 먹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 단 간식이 더 좋아지나보다, 라고만 생각 했다. 하지만 장성에 어르신께서 들려 주신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지하철에서 노인의 옆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옆에 아홉은 옆자리 노인이 기침을 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상당수는 자리를 뜨기도 할 것이다. 노인이 기침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대개는 사탕을 먹으면 멎는다. 장성에 어르신은 같은 상황에서 자리를 뜨기보다는 사탕을 건넨다. 이것이 가방 속에 사탕이 자리한 이유이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르신과 나의 가방 속을 비교해 보았다. 블루투스 이어폰, 텀블러, 화장품이 든 파우치, 노트, 필기구에 이르기까지 겹치는 물품들이 꽤나 많았다. 좋아하는 악기 연주에 열성을 다하며 재능 기부를 하는 모습, 립스틱을 꺼내 들 때에는 수줍어하는 모습, 핸드폰과 이어폰이 외출 필수템으로 꼽는 모습까지. 텍스트로만 나열하면 나이대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물건들을 살펴보면, 40년 후 내 가방 속을 미리 살펴보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영상을 보는 이들도 이러한 감정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다. 노인은

미래 어느 날의 내 모습일 뿐, 이해할 수 없는 여타의 존재가 아니기에.

영상서포터즈 장운채

“영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나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지난 3년 동안 휴먼다큐멘터리 PD라는 꿈을 키워왔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열정 하나로 영상 제작 학회에 뛰어들었다. 단편영화, 예능,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내가 찍고 싶었던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그리던 대학 생활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은 안개의 베일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때 결심했다. 학교 밖에서 나를 찾고, 내가 진정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우연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영상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멈추지 않고 지원서를 쓰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영상이다.” 확신이 들었다. 영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나의 신념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

될 것 같았다. 첫 번째 회의를 마친 후,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안국역 근처 맛집을 찾았다. 한적한 골목에서 발견한 라멘집은 내가 먹어본 라멘 중 단연 최고였다. 식사를 마친 뒤, 비가 자작자작 내리는 안국역 주변을 거닐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동네의 분위기는 내가 지내온 일상에서 한 발 벗어난 해방감과도 같았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작은 감성을 곁들인 그 순간, 나는 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첫 임무는 <나이듦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는 것이다. 안국역 골목을 걸으며 주제에 대해 고심했다. 나는 청년들이 느끼는 고민과 걱정을 담고, 그에 대한 어르신들의 조언과 경험을 잇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영상이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영상은 감동을 가장 빠르고 깊게 전달하는 도구다.” 이것이 영상의 진정한 매력이다. 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나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나는 이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따뜻한 손길, 깊어지는 인연 : 신한라이프의 나눔 이야기

기업사회공헌
사회복지사 유경희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해마다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기업들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설, 추석 명절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 제공을 위한 특식 지원, 어버이날에는 우리 모두의 어버이인 어르신들에게 드리 는 선물 나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삼계탕, 도가니탕 등의 특식 지원 등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눔은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중 23년도에 만나게 된 신한라이프와의 나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3년도 하반기 신한라이프의 후원 담당자에게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센터가 회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많아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센터는 마침 6.25전쟁·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어르신의 기록을 담은 기억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후원해 줄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센터가 제안한 기억아카이빙 프로젝트 제작에 흔쾌히 수락을 해주었고, 덕분에 멋진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장어구이 특식 지원과 사장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나약하고 힘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왔던 한 임직원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배식 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식사를 마친 후에 사장님에게 찾아가 손을 잡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주시는 등 이런 분들을 잊지 못하여 초복 맞이, 추석 명절에도 나눔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사장님이 “처음 나눔을 실천할 때의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어르신과의 관계가 한 번, 두 번 보니 어르신이 떠올라 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누군가와 처음 맺는 관계는 어색하지만 한 번 맺어진 관계는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라이프와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사장님 및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

CHAPTER

관계를 넘나드는

세대통합 이야기

왓츠 인 마이백	34
나이듦에 대하여	36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38
---------	----

피어나는 시간

삶에 머무르는 따뜻한 흔적	40
----------------	----



왓츠 인 마이백

터질 듯이 꽉찬 가방을 매고
어디론가 향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어르신들의 가방 속에는 어떤 물건이,
어떤 사연이 담겨있을까요?

신포월, 장성에 어르신들의 가방 속에
담긴 사연이 궁금하다면?

촬영 및 편집
영상서포터즈
정영은



나이듦에 대하여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앞만 보고 달리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옆에서 함께 달려와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 등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치있는 ‘나이듦’이란 무엇일까요? 한 해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앞으로의 나날을
기대하기도, 지나온 나날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어르신에게
물습니다.

“집, 학원, 독서실 뿐이었던
환경이 대학교를 다니며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삼남매 낳아 기르며
월세방에서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안영수 어르신

“내가 내 인생 사느라고
부모님께 너무 소홀히 했구나.
너무 한스러워요.”

신포월 어르신

장성에 어르신

“내 마음에 있는 친구들..
다시 만나서 그동안
그리웠던 이야기 나누자”

안영수, 신포월, 장성에 어르신과
장윤채 청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촬영 및 편집
영상서포터즈 장윤채





현장의 목소리

“어르신, 저희는 언제나
어르신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한결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촬영 및 편집

영상 서포터즈 손승연, 박서연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현장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나누며 어르신들과
소통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영상과 함께 전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을 응원합니다.

피어나는 시간

삶에 머무르는 따뜻한 흔적

인생을 살아가며 걸어온 길 위에서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관계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수많은 인연이 남긴 발자국이 하나씩 모여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 위에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관계는 그저 지나가는 만남이
아닌 서로의 삶에 머무르는 따뜻한 흔적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

이상근

우이정에서 칠십 넘은 참 좋은 친구들
서늘있는 고당친구 고향 꽃이 만발한다
김밥에 목마르면 막걸리 한잔하면은
학창 시절 추억을 더듬어서 헤아려 본다

서로의 이쁨을 불려도 괜찮은 친구
허물없이 농담하여도 웃을 수 있다
나이 들어서 반말할 수 있어서 좋고
가끔은 음담패설 늘어놓아 웃음 짓고
동네길 걸으면서 손자녀 자랑하면서

세상사 뒤쳐진 이야기에 열 들여보기도
말동무 짝동무에 산 증택까지 가보자고
괴로움도 슬픈 일도 풀을 수만 있다면
국밥에 소주 한잔하는 친구가 어찌랴
토요일 날에 만나자던 참 좋은 친구들



아버지

정재원

아버지 등은 넓었고
살내음은 향수보다 감미로웠다
아버지 등은
내 삶의 난로

액자 속 아버지는 양복차림으로
밤을 새고 계신다
딸의 외로움을 다 들어주셨다

불혹의 나이로만 계신 아버지
딸이 비바람을 막아내도록
따뜻한 빛으로 함께 하셨다

올 잔인한 사월, 어머니를 만나시고
떠오른 상무지개 빛은
오로라 같이 아름다운 영원한 소망

이젠 행복할 일만 있으라 하신다..

센터에는 인연이 만들어내는
소중한 흔적을 손끝으로 기록하고
간직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76호 기관지를 마무리하며
한 줄 한 줄에 이야기를 담아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와 수필의
만남 동아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는데요. 친구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어르신들의 시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